**섣부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! (1) / 캡틴 카레**

****

† 섣부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!(1)

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.

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용기가 저절로 나고,

그들과 함께 있을 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.

다시 말해 우리를 좋게 인정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

마음이 한껏 고무됨을 느끼게 된다.

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는 자연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마련이다.

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,

우리 자신조차도 놀랄 정도의 향기를 지닌 삶을 살게 된다.

특히,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.

신앙이 성숙할수록

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점점 덜 민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,

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어린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에 대해

주님께서 엄숙히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!

어린이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할수록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욱더 못하게 된다.

다시 말해 그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말들이

오히려 더욱 잘못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.

이 땅 위에 있는 한,

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.

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 뜻대로 만들어 나가신다.

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.

하지만 우리의 비천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는 그 순간이 되면

우리는 완전해진다.

목공소에 가서 목수가 만들고 있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의자를 보고

"면이 너무 거칠고, 모서리가 잘 되지 않았군!"이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.

아마 그 목수는 화난 목소리로,

"그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,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.

나는 일정한 형태를 마음속에 두고 만들어 나가고 있소이다.

다 완성된 뒤에 와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구려"라고 말할 것이다.

이 말대로, 목수는 마지막에 아름답고, 광이 번쩍번쩍 나는 완전한 모습의 의자와 책상을

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다!

그러므로 섣부른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목수의 말이 옳다.

이렇듯 우리 가운데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가 있고,

아름답지 못하고 덧없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가 있다.

(캡틴 카레가 지은 “기도하는 하이드” 중에서...)